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의 인플레이 통제 정책은 어느 지표 활용 여부에 달려... CPI, PCE 서로 다른 메시지 보내
- WSJ: 미 실업수당 청구 건 지난주 또 감소
- WSJ: 2월 미 제조 활동 지수 조금 나아졌다
- Bloomberg: Warren 바이든에 “좀 더 완화적인 연준 부의장 지명” 요청

[미국 금융]

- WSJ: 미 은행들 작년 수익 6% 하락... 전쟁·인플레이·고금리 탓
- CNN Business: 갈림길에 서 있는 달러... 최근 반등세

[국제 물류]

- WSJ: 국제 해운 업계 수년 만에 가장 큰 침체...물동량 감소 탓

[에너지]

- Reuters: 미 경제 둔화로 디젤 수요 둔화
- WSJ: 작년 글로벌 탄소배출량 우려했던 것 보다 적게 늘어

[미국 주택 시장]

- The Economist: 미 주택시장을 보면 경기 침체가 보인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테슬라, 멕시코에 차량 조립 공장 새로 짓는다
- Reuters: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 2037년까지 말레이시아에 60억 달러 투자
- WSJ: 애플, ChatGPT 기반 앱 업데이트 차단...”AI 잠재적 해악에 따른 것”
- NYT: 델타항공 조종사들, 임금 34% 인상 승인
- NYT: 소비자에게 과도한 팁 강요하는 터치스크린...”계산원 눈치 보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Fed Might Be Winning Inflation Fight, Depending on Index Used

연준의 인플레이 통제 정책은 어떤 지표 활용하느냐에 달려... CPI, PCE 서로 다른 메시지 보내

- 우선 기본적으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수는 개인소비지출 지수(PCE)이다. PCE는 2% 물가 목표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선호한다.
- 그런데 현재 CPI 인플레이션이 PCE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이다.
- Barclays 기관에 따르면 올해 10월 연준 선호 PCE는 1년 전 동월에 비해 2.8%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CPI 연간 상승률 2.6%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

-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보지만 연준은 매파적인 입장을 더 취해야 할 지표로 본다고 Barclays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결국, 연준에는 의사소통 관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리라는 것. 특히 이같은 지표상의 차이점은 CPI의 주택 비중이 33% 인데, PCI에 대한 주택 비중은 그 반 정도에 머물고 있는 이유 등이다.

WSJ 기사

WSJ: U.S. Jobless Claims Ticked Down Last Week 미 실업수당 청구 건 지난주 또 감소

- 연방 노동부의 이번주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최초 실업수당 청구가 19만 건으로 약 2천 건 감소했다. 4주간 평균은 19만 3천 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 테크, 금융을 중심으로 해고가 이어졌음에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초부터 팬데믹 이전 평균인 주간 약 22만 건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미국 노동시장에 1월 새로 추가된 일자리는 50만개 이상,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전히 강력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WSJ 기사

WSJ: Manufacturing's Death Has Been Greatly Exaggerated 2월 미 제조 활동 지수 조금 나아졌다

- 이번주 수요일 발표된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 활동 지수는 32개월 동안 가장 낮았던 1월의 47.4에서 2월 들어서는 47.7로 약간 상승했다. 50에 미달하기 때문에 제조 활동이 확장되기 보다는 여전히 감소하는 상황이다.
- 비슷한 조사인 S&P Global 제조 지수는 1월의 46.9에서 47.3으로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했다.

WSJ 기사

Bloomberg: Elizabeth Warren Wants Biden's Next Fed Pick to Counter Powell's 'Extreme' Rate Hikes Warren 바이든에 “좀 더 완화적인 연준 부의장 지명” 요청

- 연준의 부의장이 최근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으로 옮김에 따라 부의장 후임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바이든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다음 대선에도 나설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지속적인 인플레이 때문에 고민거리다.
- 즉, 연준 부의장에 누구를 지명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Elizabeth Warren 연방 상원의원은 파월의 '극단적인' 금리 긴축 정책에 이견을 보이는 인물이 부의장에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바이든에게 촉구하고 있다. 자칫 연준 관리 모두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경우 미국 경제가 일자리 손실,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 때문이다. 현재 두명이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 한편 파월 의장 입장은 공화당 대부분과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Bank Profits Fell 6% Last Year as War, Inflation and Higher Rates Hurt Results

미 은행들 작년 수익 6% 하락... 전쟁·인플레이·고금리 탓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가 이번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산업의 수익이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에 6% 떨어졌다. 그러나 전체 수익 2천6백30억불은 2021년을 제외하고 거의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인 해였다.
- 지난해 수익 감소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러시아 침공 사태 등의 여파 때문이라는 것.
- 한편 고금리 정책 때문에 지난해 순수 이자 수입은 그 전년도에 비해 20% 증가했고, 소비자와 기업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 비이자 수입은 3% 정도 하락했다. 고물가와 팬데믹 경제진흥 프로그램 종식 때문에 은행 관계자들은 소비자 용자 장부(consumer-loan book)에 더 우려했고, 불황 기금을 더 준비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The US dollar is at a crossroads

갈림길에 서 있는 달러... 최근 반등세

- 주식 시장에서 불안정한 변동 요인은 급증하는 달러다. 달러. 이는 글로벌 기축 통화는 물론 글로벌 경제 여건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지난해 20년만에 가장 가치가 올랐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다.
- 이후에 둔화하던 달러가 최근 수 주 동안 또다른 회복세나 반등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장 낮은 때와 비교해 4% 상승했다. 7주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강달러가 외국 바이어들에게 미국산 가격을 부담스럽게 하고 해외 매출을 줄이고, 글로벌 무역의 약화되기 때문이다.

-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많은 S&P 500 전체 매출의 30%는 미국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강달러는 국제 영업활동 수익과 미국 투자가 입장에서 본 주식 성과에 역풍이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달러가 다시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 속도와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입장, 향후 일자리 보고서 등에 주목하는 이유다.

CNN Business 기사

[국제 물류]

WSJ: Idled Ships, Empty Containers. Ocean Shipping Faces Its Biggest Slump in Years.

국제 해운 업계 수년 만에 가장 큰 침체...물동량 감소 탓

- 국제 해운 업체들이 수출 급감, 운임 하락, 업계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씨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항구의 통행량이 크게 줄고 빈 컨테이너들이 쌓이며 태평양 전역 선박 수용량의 3분의 1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의 12월 수출은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며 전년 대비 10% 하락했다. 물동량이 줄어들자 중국-LA 운임이 전년 동기 1만5천6백 달러에서 이번주 1천2백38달러로 떨어졌다.
- 이는 인플레이로 인해 제품 수요가 감소했고, 미국인들이 중국 상품 구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소비 경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것인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해운 업계는 전 세계 선박 용량의 약 7%가 중단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Amazon, Target 등 대형 고객사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재고 과잉, 해운사 간의 가격 인하 전쟁까지 다시 시작되면서 올해 해운사들의 운임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WSJ 기사

[에너지]

Reuters: Column: U.S. diesel consumption falls as economy slows

미 경제 둔화로 디젤 수요 둔화

- 미국의 디젤 및 기타 증류 연료 오일 소비는 제조업 및 화물 활동 둔화 때문에 지난 해 10년 중 가장 느린 속도를 보였다.
- 연방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소비량의 척도인 국내 시장 증류 오일 공급량은 2022년 12월 기준 하루 평균 370만 배럴이었다. 전년도 전월의 4백만 배럴에서 감소했다.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공급 수준을 보인 것.
- 증류 오일의 80%는 주로 화물 운송, 제조, 건설 등에 사용된다.

Reuters 기사

WSJ: Carbon Emissions Climbed Less Than Feared in 2022 Despite Coal Resurgence**작년 글로벌 탄소 배출량 우려했던 것 보다 적게 늘어**

- 물론 작년 탄소 배출량은 작년에도 증가했다. 그러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붐으로 인해 팬데믹 때부터 되살아난 석탄 발전소 여파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2년에 1% 미만인 3억2천1백톤이 증가했다.

WSJ 기사

[미국 주택 시장]**The Economist: America's property market suggests recession is on the way****미 주택시장을 보면 경기 침체가 보인다**

-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과 인플레이 추세간에 관련성은 아주 강력해서 무시할 수 없다. 만약 구매자들이 공급이 제한된 주택 시장에 돌아오게 되면 주택가는 올라갈 것이다.
- 만약 연준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같은 금리 민감 부문들이 긴축 금리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더욱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 입장에서나 글로벌 입장에서 이같은 불안한 상황의 가능성이 더 크다.
- 현재 주택 착공 회사인 Pulte 등은 30년 모기지율을 단지 4.25%에서 거래하는 등 디스카운트로 잠재적인 구입자들에 구매하고 있다.
- 그런데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는 작년에 실질 기준으로 5분의 1 감소했다. 올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요가 새로 늘기 시작했지만, 주택 착공은 하락한 상태이다.

The 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CNN Business: Tesla to build next plant in Mexico****테슬라, 멕시코에 차량 조립 공장 새로 짓는다**

- 테슬라가 이번주 수요일 발표를 통해 다음 차량 조립 공장은 멕시코 몬테레이 인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테슬라는 “기존 모든 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중국 상하이, 텍사스 오스틴, 독일 베를린에 총 4개의 공장에서 연간 약 2백만 대를 목표로 가동 중이다.
- 한편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북미에서 조립되어야 하는 만큼 멕시코의 공장도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다. 멕시코에는 이미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이 지어져 있으며, 생산량 면에서 세계 7번째 규모이다.

CNN Business 기사

Reuters: Amazon's cloud unit to invest \$6 bln in Malaysia by 2037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 2037년까지 말레이시아에 60억 달러 투자

-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 사업부 Amazon Web Services(AWS)가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강화를 위해 향후 14년간 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AWS 인프라를 건설하려는 아마존의 최근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는 태국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 한편 AWS의 클라우드 플랫폼은 저장공간, 로봇 공학, 인공지능을 포함한 2백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Reuters 기사

WSJ: Apple Blocks Update of ChatGPT-Powered App, as Concerns Grow Over AI's Potential Harm 애플, ChatGPT 기반 앱 업데이트 차단...”AI 잠재적 해악에 따른 것”

- 애플이 AI를 기반한 언어 도구를 사용하는 이메일 앱 BlueMail의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했다.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 또 BlueMail에게 연령 제한을 17세 이상으로 높이거나 콘텐츠 필터링을 탑재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는 애플이 현재 AI 기반 기술과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BlueMail의 최신 버전은 OpenAI의 ChatGPT를 기반으로 이메일 작성을 자동화한다. BlueMail 개발자는 애플의 업데이트 보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ChatGPT 기능을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의 경우 앱스토어에 17세 이상의 연령 제한으로 등재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연령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WSJ 기사

NYT: Delta Pilots Approve Contract Raising Pay by 34% 델타항공 조종사들, 임금 34% 인상 승인

- 델타항공의 조종사들이 2026년까지 34% 임금 인상 및 스케줄 조정, 퇴직금과 기타 복지 개선의 내용을 담은 새 계약을 승인하면서 다른 미국 항공사들의 노사 간 협상 기준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종사 노조는 지난 2월 투표를 진행해 이번주 수요일 조종사 78%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임금 인상액이 4년간 7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 이러한 임금 인상은 미국의 조종사 부족과 항공 여행 수요의 강한 회복에 따른 것으로, 델타는 4월부터 조종사 외에도 승무원과 수화물 처리원을 포함한 다른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T 기사

NYT: Tech Is Allowing Businesses to Overcharge You in Tips 소비자에게 과도한 팁 강요하는 터치스크린... "계산원 눈치 보며"

- 디지털 결제 상품의 확산과 가게마다 터치 스크린 결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팁이 유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터치 스크린은 점주들이 팁을 미리 설정해서 화면에 띄우기 때문에, 보통 팁을 주지 않아도 되었던 많은 곳에서 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 팁을 주는 것이 더 이상 서비스 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한 사회 경제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많은 소비자들은 팁을 줘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No Tip" 버튼을 누를 때 계산원의 눈치를 보며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
- 터치 스크린을 사용한 결제 기술의 발전이 비정상적인 팁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화면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점주가 사전에 팁의 양을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직접 입력,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고 부당한 팁에 대한 압력을 느낀다면, 정부 기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소비자들은 팁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현금으로 팁을 줌으로써 스크린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NYT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봄철 맞아 美주택시장 다시 들썩...'불황 가늠자' 주목"

"이코노미스트, 연준 '적극적' 금리인상 가능성 진단"

미국 주택시장이 다시 들쭉거릴 징조를 보임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키로 결정할 경우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한 봄 부동산 시장 동향이 올해 글로벌 경제전망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가능한 결과의 범위 중 한쪽 끝에는 불황이, 다른 쪽 끝에는 연착륙이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